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한다. 모두가 전쟁에 싫증이 났다. 전쟁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전쟁은 그 나라의 경제와 국력을 약화시킨다. 전쟁이 분쟁을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조차 죄스러운 일이라고 느낀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앉아서 서로 이성적으로 의사를 소통하고 분쟁과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성적이고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을 살상할 목적으로 거대한 무기 공장을 건설하는 데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할당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평화를 갈망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한다. 그런데 왜 싸우는가? 전쟁은 왜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마침내 전쟁이 종식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러한 평화를 발견하기에 앞서 겪어야 할 끔찍한 전쟁은 두 번 더 있다. 본문에는 다음의 마지막 전쟁에 대한 계획이 묘사되고 있다. 나는 언제라도 그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도화선에 이미 불이 붙었다. 폭발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없다.

에스겔서 38-39장에 있는 대로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전쟁에 앞선 전쟁이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패배시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신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의 5/6를 멸하신다. 이렇게 되면 열 나라로 된 동맹 연방 국가가 서방 유럽에서 세력을 잡고 인근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 때 한 사람이 평화에 대한 환상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온다. 그는 여러 민족들과 백성들을 융합시키는 마술사와 같다. 그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수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막강한 경제 불력과 금융체제를 형성할 것이다. 온 세계가 이 사람을 알고 싶어하고 그와 그의 계획과 정책들을 따른다. 바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다.

기꺼이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여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집트도 그가 대항하는 나라 중 하나일 것이다. 그가 이집트에 대항하면 중국과 동부 국가(일본, 인도)들은 군대를 보내어 유럽 대륙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땅에까지 오게 된다. 유브라데 강물은 말라 동방의 군주들이 갈 길을 예비한다(문자 그대로는 “해돋는 곳의 왕들”임, 16:12). 그들은 북쪽의 러시아 왕과 연합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을 배치시키고 그들을 무장시켜 이 유럽 민족 연합에 대항할 것이다. 이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계시록 13:1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13:1)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는 부활된 로마 제국이라 할 있는 공동시장의 열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다. 짐승에 대한 설명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철과 진흙으로 된 열 개의 발가락을 가진 큰 신상을 생각나게 한다.(단 2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는 놋이고 종아리는 철이며,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우상을 보았다.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자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느부갓네살 왕은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꾸는 꿈의 내용을 기억할 수 없었고, 그 꿈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번민에 빠진 그는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자기가 꾸는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박수와 술객들은 모두 발뺌을 하면서 “저희가 그 꿈을 알지 못하면 그 해석도 할 수가 없나이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해석하여드리겠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내가 기억할 수 없도다. 너희가 가짜가 아니라면 내가 꾸는 꿈의 내용을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대답했다. 결국 그들은 왕에게 대답을 하지 못했고 왕은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진정하시라고 전해라. 내가 가서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말하리라”고 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온 청년 중 하나인 다니엘이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겠다는 소식을 받았다. 한편 다니엘은 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우리는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 주시고 해석도 해주셨다.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여, 왕께서는 꿈에 이 세상 나라들을 보셨나이다”라고 말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나라에서 일어날 일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은 왕이 꾸는 꿈의 내용을 묘사해 주었다.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산에서 뜨인 돌에 맞아 파괴되고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은 금으로 된 머리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계 제국들을 주셨고, 당신은 그들을 다스리나이다. 그러나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제국에게 망하리니 이는 곧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니이다. 그러나 그 나라도 헬라 제국에 망하리니 이는 놋으로 된 배이며, 이 나라는 또한 로마 제국에 망하리니 이는 철로 된 종아리니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계를 다스릴 나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철과 진흙으로 된 열 발가락이다. 옛 로마 제국과 관계있는 열 개의 국가 연합 또는 그 우상의 발에는 철이 섞여 있었으므로, 적어도 로마 제국과 관련된 많은 나라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가 세계의 지배국으로 떠오를 것이다.

나는 유럽 공동 시장의 나라들이 이 열 개의 국가 연합의 전조라고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수 천 년 전에 말씀하신 사건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이 10개국 연방에서 아주 막강한 지도자가 부상할 것이다. 그는 사단의 권세를 받아, 문제 많은 세상에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속일 것이다. 그러나 이 10개국 연방은 산에서 뜨인,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에 의해 종말을 맞게 된다. 이 돌은 10개국 연방의 발을 쳐서 무너뜨린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느부갓네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이상을 보았던 것이다. 다니엘 2:44에는 “이 열왕의 고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방의 세력은 모두 끝난다. 예수님은 이 땅을 가득 채울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 이 때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때이다. 황금 시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 계시록 13:2-4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13:2)

사단은 예수께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자신의 왕위를 주겠다고 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4:9)

본문에 보면 사단이 세상 나라들을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사단은 여전히 세상의 군주요 이 시대의 신이다. 그는 세상을 자기 지배 아래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된다.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단에게 권한이 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13:3-4)

적그리스도는 오른쪽 눈이 멀고 팔이 마르는 것으로 보이는 암살 계획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숙11:17). 그러나 거의 죽게 된 것처럼 보여도 그는 다시 소생한다. 그의 힘을 볼 때, 온 세상이 기이히 여기며 따르게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누가 이 사람과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인간(superman)이 된다.

그 때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할 것인데, 이것은 사단 숭배이다.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사단을 경배하고 있는지를 알면 놀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다.

#### 계시록 13:5-1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 (이스라엘) 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13:5-7)

이 본문 말씀으로 교회가 대환난 기간 중에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의 이론에 따른 “초월 성도”(super saint) 개념에 상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마태복음 16:18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에 대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과도 상반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 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 (세상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이끄는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13:8-11)

이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족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 오게 하고 (두 증인의 사역을 흉내 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13:12-14)

그 거짓 선지자는 세상으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13:15)

여기서 생기를 주는 권세란, 정보를 받고 어떤 것들을 말하거나 선포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하는 것 같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일을 성취할 만한 컴퓨터 사회에 있다.

계시록 13:16-18

짐승의 수는 666이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이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13:16-18)

나는 666이라는 상표가 붙은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일본산 셔츠에서 뎀 666 상표가 찍힌 작은 꼬리표도 있고, 큰 글씨로 666이 새겨진 서독제 큰 비료 봉지도 있다. 사람들은 왜 그 숫자, 상표를 택할까?

더욱 흥미 있는 것은 숫자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모든 금융체제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 수가 없이는 아무도 매매할 수 없다.

실제로 은행가들은 화폐를 없애고 완전히 컴퓨터로 자동화된 금융시스템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몇 년 전 《The Los Angeles Times》에는 이런 광고가 실렸었다. “태초에 돈이 있었으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러나 지금은 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광고에는 수표를 은행의 계정에 올리는 방법과 계산서를 보내는 방법이 나와 있었다. 은행은 모든 계산서를 맡아서 처리한다. 그러므로 돈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사든지 팔든지 카드만 쓰면 된다. 수표책을 볼 필요도 없고 현금으로 속을 썩일 일은 결코 없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카드의 도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레이저로 문신을 새겨 문신된 숫자로 카드를 체크하는 것이다. 아무도 그 숫자를 훔쳐갈 수 없을 것이고 성경이 말한 대로 그 수가 없이는 사거나 파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